

특별기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장 휘 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저는 역사 교사로 2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국정 국사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권위주의 군부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획일적인 사관으로 쓰인 교과서 하나로 모든 학생에게 독재를 미화하며 일부 친일파의 행위를 옹호하는 역사를 가르쳤고, 시험에 나온다면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역사적 진실도 가려졌으며, 교사로서의 고뇌와 반민이 많았습니다.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다양한 사관과 가치에 근거한

역사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였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경제대국이 되어 국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역사교육을 심어준다는 명목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진전을 유신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특정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가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교과서는 항일운동을 폄하하고, 오히려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웠습니다. 이같은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파 청산을 왜곡하는가 하면, 박정희 유신 독재를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미화하였습니다. 더구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금지탑인 5·18 민주화운동까지 왜곡하고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축소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역사교과서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의 가치관과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가로막아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중학교 국정교과서 제도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89)’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1992)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㉔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검·인정제도보다도 훨씬 교과서 발행 방법이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방되고 있는 자유발행 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중략)...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중략)...”

㉓ ...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사건번호 89헌마88)

이처럼 헌법은 물론 34명의 서울대학교 역사학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전국의 역사학자, 2300여 중등학교 역사 교사도 반대하는 등 민의(民意)에 반하고, 민주주의 가치, 자율성·다원성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논란은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던 1973년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가 아닌, 보다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뤄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정제도보다는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배 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곧 추석이 다가온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기해 헤어졌던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니 매우 기쁜 소식이다. 이제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1세대들은 거의 타계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보고 싶고 그리운 가족들이 만난다는 것은 혈육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 뿐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합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남북한은 공허 조상 숭배의 효 사상, 공동체적 질서, 미풍양속의 명절 풍습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나눔·배려·소통·화합 등 동양정신의 가치가 부상되는 이 시기에 이러한 가치는 미래 지향적인 세계화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석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동을 추진할 수 있지

추석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않을까 한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보름달이 밝은 날로, 처음으로 수확한 햇곡식으로 송편과 각종 음식을 만들어 다례를 지내면서 1년의 풍년을 하늬고 조상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 간에 화합을 다지는 날이다. 이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하던 것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앞으로 올 본격적인 추수가에 대비하여 잠시 일손을 놓고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계절도 가장 알맞은 시기라 그래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겼기도 했다.

추석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왕도를 6부로 나누었는데, 돌로 크게 편을 갈라 각각 왕녀가 대표가 되어 부내의 여인들을 인솔하여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두레 김쌈을 하였다 한다. 추석날 그 성과를 심사해서 진 쪽은 이간 편에 술과 음식을 내고 ‘가배’, ‘가배’ 축하하며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했는데, 이를 ‘가위’라 하며, 오늘날 한가위의 어원이 되었다.

한편 추석날에는 여러 민속놀이도 행해지는데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활쏘기 등을 함께 어울려 즐겼다. 추석은 축제의 날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대표적

인 놀이로는 강강수월래를 들 수 있다. 강강수월래 놀이는 해마다 음력 8월 한가위 날 밤에 추석밤으로 고품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뛰놀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민속 고유의 놀이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는 데 활용했다는 일화도 있다.

추석날은 여성들이 음식 장만하느라고 고달프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반보기’라 하여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허용되어 고달픈 시집살이를 위로받기도 하였다. 추석을 전후하여 사람을 보내 만날 시간과 장소를 연락하여 중간중에서 만나 서로 장만해 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담을 나누다가 저녁에 헤어졌다. 겨우 한 나절 정을 나눌 수 있다는 데서 ‘온보기’가 못하고 ‘반보기’라고 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형문화유산이 12개 있다.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위화도 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처용무, 강강

술래, 제주 칠머리당 영동굿, 남사당놀이, 영산재, 대목장, 매사냥, 가곡, 출타가, 태권,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등 역시 12개가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자지삼세요절 하권, 승정원일기,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지계,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11개가 등재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은 개성 역사유적지구, 고구려 고분군 단 2개뿐이다.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유구한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창조적 문화 콘텐츠와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을 널리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미처 주목하지 못한 우리 안에 내재된 인류 보편적이면서 한민족 특유의 전통이 담겨 있는 유산의 보석을 잘 다듬어 세계인과 공감하는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문화 리더 국가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중 설날·추석 등의 세시풍속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원형과 변화 양상을 탐구함과 아울러 세계화하는 작업도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진정성 있는 통일의 시대를 여는 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칼럼

세종대왕과 당뇨병막증



문 귀 형
보리안과병원 원장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왕, 백성을 사랑한 성군, 세종은 훌륭한 유교 정치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고, 후대에 모범이 되는 왕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창제 4년 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당뇨병을 주범으로 꼽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식성이 좋아 하루 네 끼 식사를 했으며, 주로 육식을 즐겨 수라상에 고기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비만 체구라 당시 왕들이 즐기던 사냥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에는 흥미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30대 중반부터 안질을 앓아 온 세종은 눈이 점점 나빠져 시각장애를 갖게 된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표적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막증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 10초 마다 1명씩 사망하고, 매 10초 마다 2명씩 이 질환이 발생한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며 유전적 요인과 비만, 운동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생에 주로 영향을 준다. 이 질환, 바로 당뇨병이다. WHO가 아시아 지역에 경고한 당뇨병 대란 추계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2030년에 전체 인구의 14.4%인 72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흔한 병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질환 그 자체보다 질환과 함께

오는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심혈관 질환, 신부전 질환, 눈 합병증, 발 합병증 등이 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4배 심혈관 질환을 지닐 확률이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도 일반인의 2배 이상이다.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필자 역시도 당뇨병합병증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혈당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은 눈 검사를 받아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

당뇨병이 오래 진행됐고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는 사람은 당뇨병막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높아진 요즘,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화두가 됐다. 흔히 하는 말 중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다. 몸이 느껴지는 작은 이상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피며,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지역 숙원 사업 예산 확보 막판까지 최선을

광주·전남의 내년 국비 지원 예산 가운데 일부 핵심 사업이 누락됐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터여서 막판까지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386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2016년 예산안에는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예산 676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의 중요 프로젝트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총 사업비 602억 원)도 제외됐다.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오체가 빠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비마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의 취약한 산업태도를 다져 자생력을 키우려는 계획이 무산될 처지다.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90억 원), 모토형 다단계 변환기 기반 직류송전시스템 개발(147억 원) 같은 사업 역시 일단 멈추게 됐다.

전남도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360억 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400억 원) 등도 국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여수~남해 간 도로(동서해저터널) 건설 추가 증액도 불 건너갔다. 전남도가 원할한 물류 시스템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들에 손도 대지 못하게 돼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 보인다.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숙원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막판 총력전을 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핵심사업의 작은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 또한 발로 뛰어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현안 예산을 얼마나 챙기는가가 유권자 신임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름 관람객’...광주 아트페어 성과와 과제

광주 유일의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 15’가 관람객 7만여 명, 판매 작품 800여 점(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는 미술시장의 오랜 불황 속에서 일귀 년 성과라는 점에서 자못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사상 최대의 관람객 유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흥행부진을 극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사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8일 광주미협이 주축이 된 아트광주 집행위원회(위원장 나상욱)에 따르면 행사기간 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7만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만여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트페어의 특성상 성태의 잦대로 꼽히는 판매 실적 역시 800점(30억 원)으로 첫 회 42억 원(2010년)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올해 아트광주가 관람객 유치와 매출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감한 변화다. 광주시로

부터 행사 운영을 위탁받은 광주미협은 기존 화랑 중심의 아트페어에 소외를 받은 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별(작가) 부스와 영 아티스트존 등을 신설했다. 또한 컬렉터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 작품 판매를 끌어올렸다.

사실 아트광주는 지난 2010년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계를 내걸고 창설했지만 예산 부족과 마케팅 전략 부재로 외면을 받으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과는 아트광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 아트페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유명갤러리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담 조직의 부재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는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아트광주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국의 섬유산업이 촉발시킨 산업혁명은 바로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한 자동화 기계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지적처럼 세계의 역사, 특히 ‘자본과 고용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었다.

1760년 솜의 불순물을 없애고 가질러 하는 소면기(梳綿機)가 발명된 이후 1769년 방직기, 1786년 기계식 직조기, 1793년 목화 씨 분리기 그리고 마직작기가 발명되면서 영국의 섬유산업은 절정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초반, 치솟는 몸값으로 호황을 누렸던 직조공들은 ‘불행히도’ 자동차로 천을 짜는 직조기(織造機)가 탄생하면서 순식간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했다.

‘직조’는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증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무한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자동으로 해낼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수만 명의 고급 직조인력이 직장을 잃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것

이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는 책에서 “이제부터 영국 산업의 모든 역사는 오로지 수공업 노동자들이 기계 때문에 어디로 쫓겨났는지, 그것만을 기록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요약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기계의 자동화’는 이제 ‘로봇화’로 이름을 바꿔 전세계의 고용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미국의 ‘포레스터 연구소’는 오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자동차와 로봇화로 2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1805년 자동 직조기가 발명되면서 영국의 섬유산업은 절정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초반, 치솟는 몸값으로 호황을 누렸던 직조공들은 ‘불행히도’ 자동차로 천을 짜는 직조기(織造機)가 탄생하면서 순식간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했다.

‘직조’는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증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무한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자동으로 해낼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수만 명의 고급 직조인력이 직장을 잃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것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